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사례



출처/가스안전·발행/한국가스안전공사

사례1. 중앙배관을 저압배관으로 오인



2005년 1월 24일 월요일 16:35분경 울산시 중구 복산동 신축주택 앞 도로상. 새로 지은주택

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인입배관 분기공사가 한창 진행되었다.

도로를 굴착하고 황색으로 코팅되어 있는 저압용 배관에 Service Tee를 설치하고 천공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런데! 저압용 도시가스 배관에서 분출되는 가스는 엄청난 압력으로 솟구치는 것이었다.

다행히도 인명피해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안도의 한숨을 돌릴수 있었다.

사고조사 결과 정작 중앙 배관은 황색으로 코팅된 배관을 사용하였고 저압배관은 적색으로 코팅된 배관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중앙배관은 적색, 저압 배관은 황색을 사용하여야 한다.

1984년에 설치된 배관으로 20년 가까이 사용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할 뿐이다.

사례2. 하천 하월 배관의 관리 분실

2005년 7월 29일 금요일 16:11분경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지지대 고개인근 1번국도 하부의 하천수로구조물 안, 수로 안에 가설되어 있는 보행자 통로를 철거하는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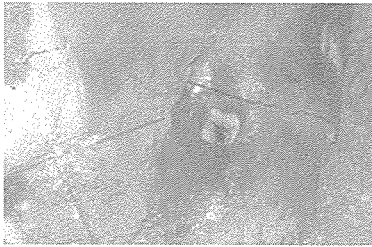
보행자 통로는 하천 바닥위에 콘크리트로 보강되어있는 상태이다.

이 보행자 통로 구조물을 폐쇄하던 굴삭기 운전



자는 구조물 아래에서 뿜어나오는 가스에 놀라 황급히 대피하였다.

누출되는 가스로 인해 인근 도로 일부가 약 30분간 통제되어 극심한 교통 체증을 야기시켰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고조사 결과 1983년에 하천을 하월하여 매설된 배관위로 1990년대 도로 확장과 더불어 수로 구조물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로 구조물 안으로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여 설치되어 있었고 그 위로 보행자 통로가 가설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굴착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도 마찬가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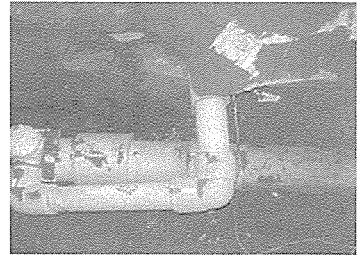
평소 잘 관리할 수 없는 사각지대이기도 하지만 설마 수로구조물 안에서 굴착공사가 진행되리라고는 차마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례3. 천공작업 중 가스 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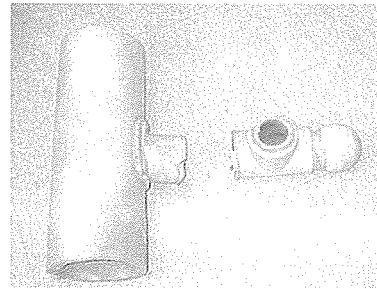
2005년 9월 1일 목요일 21:00분경 서울시 중구 어느 빌딩 앞 도로상.

빌딩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공급관 분기작업에 따른 천공 작업을 진행하던 중 Service Tee의 부속품인 플러그가 이탈되면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조사 결과 동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는 물론 장비의 문제점과 사고 관련 제품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사례4. 굴착공사 중 가스 누출



2005년 5월 31일 서울시 은평구 도로상. 상수도배관 보수 공사를 위해 굴착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서 굴삭기 운전자의 실수로 도시가스배관을 손상시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지역 300세대에 가스공급이 중단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금까지의 사고 사례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지만 사고는 어느 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자, 이를 사용하는 취급자 등 모두가 안전에 대하여 노력하였다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지면을 통하여 늘 당부하였던 것처럼 더 이상의 좋은 표현은 없다고 생각한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모두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그리고 마지막에도 안전! 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